



필사의 진화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 광산업 등 4개 업체가 불에 탔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느라 애를 쓰고 있으나 옥내의 소화전이 없거나 부족,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첨단산단 불...공장 4채 태워

### 공장 밀집·소방시설 미비 진화 어려움

### 인명 피해 없고 재산 피해만 2억여원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광(光)산업 업체 등 공장 4곳이 불에 타고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는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영세규모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데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

◇발생 및 진화=2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중소기업 임대단지 내 범호테크 인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범호테크(240평)와 NBF(240평) 등 두 곳이 전소됐으며, 인근 ▲신바람이노텍(주) ▲(주)명신메디칼은 반소돼 2억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범호테크에서는 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긴급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등 50여 대를 출동시켰으나,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범호테크 입구 쪽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제점=피해를 입은 업체들에는 옥내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옥외 소화전도 화재 현장에서 150여m 떨어진 곳에 있



하지만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옥내 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소방법상 연면적 454평(1천500㎡) 이하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 302평(1천㎡) 이하의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현주·김여울·이은미기자 ahj@kwangju.co.kr

## ■ 화재 난 공장들은?

범호테크는 연 매출 2억원의 철구조물·콘베어 등 생산업체. 같은 건물에 입주한 NBF는 전자제품 포장재를 생산한다. (주)명신메디칼은 의료용 적외선 레이저를 생산하는 업체로 연 매출은 4억7천만원. 신바람이노텍(주)은 물품검사용 디지털 엑스레이를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입주해 연간 2억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 어민 2명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홍합을 ‘여수’라는 지명이 찍힌 포대에 담아 서울 가락시장에 판매하는 등 생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여수해경에 제출했다.

한편 여수지역에서는 49어가 324ha에서 매년 5만여어의 진주담치를 생산, 150억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홍합 독소검출 발표 반발

## 여수 어민 상경 시위

여수지역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에 양식 어민들이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패류독소 언론보도 관련 여수 홍합 양식 어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과길남·이하 대책위) 소속 어민 110여명은 1일 집단 상경한 후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항의 집회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여수산 홍합에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수산 홍합의 소비가 줄면

서 평균 30kg 1포대에 1만5천원하던 홍합 가격이 6천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폭락,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나 광주지검 검사인데...”

### 30대,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검사행세

### 출동한 검사에까지 큰소리 치다 ‘덜미’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검사행세를 하던 30대가 당직검사의 신원 확인으로 들뜸이 났다.

김모(38)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광주 상무지구 Y마사지 업소에서 요금 14만원이 비싸다며 1만원만 깎아달라고 승강이를 벌였다.

종업원 이모(여·28)씨가 거부하자 “광주지검 김00 검사”인데 살인범 검거를 위해 잠복 나왔다가 잠시 쉬려고 들른 것”이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내일 상무지구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업소 주인 K(35)씨는 광주지검에 이상착의를 설명하며 ‘김00 검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 당직근무 중이던 권영빈 검사는 업소 측에 “김씨를 붙잡아 둘 것”을 요청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눈치챈 김씨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종업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화가 난 김씨는 “납치·감금됐

다”며 되레 서부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새벽 3시10분께 김씨를 상무지구대로 연행, 신분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주재에 감히 검사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느냐”며 화를 냈다.

김씨의 사기극은 새벽 3시30분, 권 검사와 당직계장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됐다. 김씨는 검사 앞에서 “나는 내일 당직을 서야하냐.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에는 “내가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는 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며 큰 소리를 쳤다.

김씨는 2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철저히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담당 경찰은 “사시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것처럼 법 조항을 줄줄 외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었다”며 “경찰이 헛갈릴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99% 이상 속았을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나원침 (7119) 김장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방:(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덜분유 값미련 위해 상습 절도

○...두 살배기 딸의 분유 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돈을 훔친 20대 가정이 경찰에 덜미.

○...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9·경북 청도군 청도읍)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1시께 자신이 일하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 M주유소 사무실에 있던 현금 66만 원을 훔쳐 달아나다는 것.

○...김씨는 사무실 내 금고가 자주 비는 점을 수상히 여긴 주유소 사장 고모(32)씨가 설치한 CCTV에 찍혀 범행이 들쭉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는 직업이 없고, 어린 딸의 분유 값과 기저귀 값 대기도 빠듯한 생활고가 계속되면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굴삭기·불도저·덤프 체험학습 버스 교통사고

건설기계노조 시위 중학생 16명 부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굴삭기·불도저·덤프트럭 연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부품값으로 인해 10년 전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기계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남도가 발주하는 판금공사에 광주·전남지역 건설 기계 사용 ▲기계 사용료의 어음 지급 근절 ▲불법영업 행위 근절 등에 관한 합의문을 전남도와 교환했다.

하지만 이날 같은 내용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가졌으나 결렬되자 경찰의 저지를 뚫고 시청사 앞까지 진출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2일 오후 3시5분께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구장터 삼거리에서 체험학습 학생들을 싣고 돌아오던 전남 70차 16XX호 H관광버스를 뒤따라오던 같은 회사 전남 70차 16XX호 버스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완도 청소년훈련원에서 야영 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교하던 나주중학교 입모(15·3년)양 등 중학생 1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 500여 명은 차량 12대에 나눠타고 나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풍명정전·호수공원 조의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지방보훈청장  
청장 문병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51-4  
TEL.(062)672-9868-948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96-6  
TEL.(061)570-7114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세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6-3  
TEL.(062)370-1240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본부장 송재형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8  
TEL.(062)370-8403

KRA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장 이진흥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485-43  
TEL.(062)410-5000